

李德一의 ‘憂國歌’ 考

梁 淳 瑛*

I. 序 言

조선조 10대 연산군 때부터 시작한 士禍에 이어 선조 8년(1575)에서부터 본격화한 양반계층 사이에 있었던 정권 쟁탈을 일삼은 당파 싸움은 국력의 소모와 外敵의 침입을 초래하여 壬辰亂과 丙子亂을 겪게 되었다. 특히 선조 25년(1592)에 일어나서 7년 동안 계속된 일본의 침략전쟁 壬辰亂은 국운을 극히 쇠약케 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참혹할 정도로 피폐시켰다. 이러한 왕조의 현실을 보면서 뜻 있는 사대부들은 나라를 걱정하였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은 亂政만을 일삼으면서 백성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志士들의 울분은 극도에 달하였다. 시조문학에 있어서 이 울분은 물론 憂國慨世의 성격을 띤 게 당연한 일이었다. 시조는 당대의 지성 또는 치자계급의 발언도구로서 정치적 관심사와 불가불리의 劃線을 긋는다.¹⁾

국가가 태평성대일 때의 사대부들은 군주의 성덕을 예찬하고 태평성대를 기리고 聖世之民임을 구가하는 데 그치지만 亂世와 당파 싸움이 소용돌이치는 사회와 사직이 百尺竿頭에 직면할 때의 사대부들은 戀君忠念과 丹心忠節, 憂國

*學科長, 文學博士

1) 林仙默, 「時調詩學叙說」 靑宇閣, 1974. p. 46.

慨世를 주제로 한 시가를 토로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憂國慨世를 주제로 한 시조는 광해군 때 국정이 날로 어지러워 감을 보고 나라를 근심하고 비분에 겨워 지은 李德一의 '憂國歌' 28수가 있고 인조 때 병자란의 국치를 보고 지은 李廷煥의 悲歌²⁾ 10수가 있다. 이 글은 임진왜란 전후 당쟁으로 국론은 두 동강이 나고 광해군이 난정만을 일삼자 李德一이 忠憤 끝에 憂國慨世하는 심정을 표백한 연시조인 '憂國歌'의 내용을 분석 고찰하고자 함이 그 의도이다.³⁾

II. 本 論

1. 時代的 背景

漆室 李德一(명종16년~광해군14년)은 16세기 말(1561)엽부터 17세기초(1622)까지에 걸쳐 살았다. 이 때는 조선조가 중기로 접어든 때였다. 조선조가 건국된 후로 중기까지는 태종과 세종의 손에서 내정의 기틀이 굳게 다져졌고, 또 왜구와 북방민족의 침입이 없어서 나라의 기반을 확립하였으므로 2백년이 넘게 태평성대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새로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2백년 동안의 태평스러운 분위기를 타고, 지배계층은 나태와 안일 무사주의에 빠졌고, 사림 세력은 공리와 공담을 일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연산군 때 훈구파와 신진 사림파의 대립이 날카로와져서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개인 감정과 권력 다툼에서 생긴 이 사화는 유자광, 이극돈 등이 대표한 훈구파가 김일손 중심인 사림파를 무고함으로써 사림의 사람들이 배죽음을 당하는 참변을 일으켰다. 잇달아 갑자사화와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일어나서 권력 싸움은 그 절정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파생한 것이 선조 초 김효원의 신진 세력을 중심으로 한 동인과 심의점의 기성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서인으로, 이른바 동서분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당파 싸움의 시작은 선조 초였고, 광해군 때

2) 拙稿 「李廷煥의 悲歌研究」, 『국어국문학연감』, 국어국문학회편, 이우출판사, 1977, pp. 135~138.

3) 이에 대한 既存研究로 姜銓燮 교수의 「漆室 李德一의 '憂國歌帖」 『국어국문학』 (31), 1966.」이란 자료복원의 업적이 있어 이에 도움을 받은 바가 크다.

에 그 치열함이 가장 심했었다.

동서분당 초기에는 동인이 득세하여 서인을 압도했다. 동인에는 李滉·曹植의 문인이 많았고, 서인에는 李珣·成渾의 문인이 많아서 당파 싸움은 학파의 대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栗谷은 동·서인의 화해를 주선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서인의 거두로 지목을 받으며 동인으로부터 專擅慢君이란 죄목으로 탄핵까지 받았다. 서인의 鄭澈은 동인의 朴謹元·宋應漑·許筭 등의 시비를 따져 이 세 사람을 귀양 보냈다. 이를 癸未三竄이라 하여 이는 당파 싸움에 관련한 정치적 유배의 시초가 된다.

동인은 선조 18년(1585) 계미년의 보복으로 정철을 논척하여 향리로 내쫓았으나 동왕 22년(1589) 鄭汝立의 역변으로 실각하였고, 이에 관련혐의를 받은 자는 죽고 유배당했다. 이런 사건 속에서도 동인의 李山海·柳成龍 등이 요직에 남아 있었는데, 동왕 24년(1591)에 정철이 建儲議로 선조의 미움을 사서 폐출되자 서인은 실각하고, 동인이 다시 집권하였다. 동인은 정철에 대해 鄭汝立의 사건 때, 죄없는 많은 동인들을 역욕한 일을 문책하기에 이른다. 결국 문책에 대한 강경파인 李山海·洪汝諄·柳永慶·李潑 등은 北人으로, 온건파인 禹性傳·金睟·柳成龍 등은 南人으로 분열하였다.

이런 당파 싸움이 분분한 속에서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치와 사회의 혼란이 이를 데 없이 심해져서 전통사회는 송두리째 무너진 듯했으며 민생고는 참담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난리 중 柳成龍의 화의 주장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난리가 평정된 후 북인이 집권케 되었다. 이 북인은 大北과 小北으로 분열하다가 선조 말년에 嗣位 문제로 극심한 반목을 하게 된다. 소북의 柳永慶이 永昌君을 옹립하고 나서자 대북의 李山海·李爾瞻·鄭仁弘 등은 광해군을 지지하고 나서서 소북파를 역적으로 몰고 집권하게 된다. 대·소북의 파쟁은 광해군 2년(1610)에 대북은 肉北·骨北·中北·淸北 등으로, 소북은 淸小北·濁小北 등으로 아무런 이념없이 마치 세포분열처럼 분열하였다.

한편 난리가 끝난 뒤에 이른바 서얼금고는 더욱더 가혹해져서 서얼 출신의 불만은 점차로 높아져 갔다. 또 노비들을 더욱더 혹사하고 그 수효를 불러 갔다.

漆室 李德一이 생존했던 16세기말은 정신에서는 유교의 교조주의가 휩쓸었고 정치에서는 당파 싸움이 심화되었고, 사회에서는 사회 혼란과 민생고가 매

우 극심했고, 신분제도에서는 서얼 금고가 더욱더 가혹해졌다. 더우기 이런 환경에서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초기의 총명함을 저버리고 권신들에 밀려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여 폭정만 일삼고 조선조 중기를 암흑기로 몰아넣었다.⁴⁾

漆室은 이런 모순의 시대에 살면서 나라 형편이 어지러워짐을 매우 근심하고, 고향에 은퇴하여 忠憤을 통하여 '憂國歌'를 지어 세상을 개탄하였다.

2. 作家考

漆室은 조선조 명종과 광해군(1561~1622) 때의 사람으로 무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李德一이요, 본관은 咸平이다. 자는 敬而, 호는 漆室, 咸陽 사람이다. 漆室은 명종 16년(1561)에 箕城옛터에서 僉知中樞府事 李崑과 金海金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뛰노는 것이 보통 아이들과 다르더니 자람에 따라 의기를 중히 여기고 기개와 勇略이 뛰어나다. 그는 「着羊錄」의 저자인 姜沆과 막역한 사이어서 젊었을 때 매우 다정히 지냈었는데 매양 國事를 논의하여 서로 호느꼈다.

선조 27년(1594) 봄에 실시된 別式文武科에 합격하였으나 알아주는 이가 없어 기용되지 못하였으므로 고향에 돌아와서 쓸쓸히 지낼 뿐이었다.

선조 30년(1597) 丁酉倭亂에는 다시 쳐들어온 왜적들이 호남일대를 약탈하며 漆室은 義兵을 모집하여 東幕山中으로 이끌고 들어가니 따르는 민중이 수천명이 되었다. 통제사 李舜臣이 이 소문을 듣고 장하게 여겨 漆室을 幕下에 두고 그에게 軍機 통제의 어려운 일들을 물음으로 소상히 指劃하여 보이니, 감복하여 그의 모책을 많이 이용하고 조정에 그 임무를 수행케 함이 마땅하다고 천거하였던 것이다. 선조가 대란을 겪고 장상들과 강병책을 논하게 된 것을 안 漆室은 築城備禦의 계책을 상서하여 바쳤다. 그후 그는 李廷龜(1564~1635)의 천거로 折衝階三品職이 되었다. 이어 선조 33년(1600)에는 副護軍이 되고 또 五衛將을 거쳐 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4) 拙稿, 「朝鮮流配文學研究: 濟州島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1982. pp.13-14 참조.

이이화, 「허균의 생각」 뿌리깊은 나무, 1980. p.9 참조.

선조 36년(1603) 冬 11월에 先妣 淑夫人 金氏喪을 당하며 3년 啜粥의 예를 李廷龜에게 물어가며 지성껏 服行하였다. 선조 41년(1608) 2월에 선조가 棄民하시니 己酉 봄에 명의 사신 熊化宣이 위문하러 왔으므로 李德馨과 柳根이 漢[가에서 遊娛하게 되자 漆室도 막료로 함께 참석하였다.

광해군 2년(1610)에 상소하여 지형을 가려서 축성하고 방위진을 강화할 제책을 진언하였더니 이듬해(1611)에 統制虞侯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광해군의 정사가 날로 어지러워지매 한 때의 賢士들이 많이 은퇴하게 되었다. 이에 漆室도 사직하고 窮廬에 돌아와 나라 근심에 싸인 채 세월을 보내면서 薶蘿小丘에 一間茅屋을 축조하여 「漆室」이라 이름하였다.

漆室은 항상 꾸짖어 탄식하기를 '국세가 기울어 위태하니 어이 붙들며 奴賊이 竊竊하니 어이 꺾으랴'고 하였다. 비분이 날로 격앙하여 오매불망하더니 이에 충분이 격렬할 때마다 노래를 지어 歌詠한 28장을 추려서 '憂國歌'라 이름하였다. 이 노래는 훗날 識者들 사이에 膾炙되어 듣는 이의 가슴을 쓰리게 하였다. 後年에 西歸 李起渤(선조35~현종3:1602~1622)⁵⁾은 楚辭를 본떠 한역하기도 하였다. 광해군 14년(1622) 9월 일에 향년 62세로 한많은 생애를 마치니 靈光道藏洞에 安葬하였다.⁶⁾

3. 作品考察

李德一의 '憂國歌' 28수는 그의 문집 「漆室遺稿」중의 卷之1 「憂國歌 二十八章(附亂辭)」에 수록되어 있다. 같은 문집 卷之 2의 「漆室公憂國歌序」⁷⁾와 「李漆

5) 자는 沛雨, 호는 西歸, 본관은 韓山. 進士 克誠의 아들. 1618년(광해군10) 仁穆大妃를 폐하여 西宮幽閉하자 은퇴. 仁祖反正(1623)이 일어난 후 진사 1627년(인조5) 式年文科 丙科로 급제, 1636년 丙子胡亂으로 南漢山城이 포위되자, 형 興渤, 군수 崔蘊 등과 민병을 모집, 淸州를 거쳐 서울로 진격할 때 講和가 되어 全州에 돌아와 末年을 보냈다.

6) 姜銓燮, 「漆室 李德一의 '憂國歌帖」 『국어국문학』 (31), 1966. pp. 57-57 참조.

7) 林慶會, 「漆室公憂國歌序」, 趙潤濟 박사는 「韓國文學史」 탐구당, 1979. p. 222에서 「漆室公憂國歌序」를 趙慶會가 썼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林慶會의 잘못임.

室憂國歌後叙」⁸⁾, 그리고 「題漆室憂國歌後」⁹⁾에는 그 인물됨과 애국정신을, 그리고 '憂國歌'는 漆室이 光海亂政에 직면한 울분과 개세의 비통한 심정을 슬회한 연시조 작품으로 매수마다 시조작품 다음에 '辭曰'하고 李起勳의 한역이 붙어 있다.

대체로 '憂國歌'의 제작시기는 광해군 3년(1611) 국정이 어지러움을 보고 시작하여 고향에 돌아와 荳蘿에 漆室을 축조한 뒤로부터인 광해군 4년(1612년)에서 仁穆大妃를 西宮에 유폐시킨 소문을 漆室이 듣게 된 때(광해군10:1618년)까지 기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¹⁰⁾

다음의 글은 李德一이 '憂國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時代的 狀況을 잘 언급해 주고 있다.

그 후 광해난정으로 조정에는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가 가득하자 漆室公은 궁벽한 시골로 은퇴하여 매양 나랏일에 근심하고 강개의 눈물을 흘렸다. 몸소 '우국가' 28장을 지어 매양 충분 격동하게 되면 그 강개를 기탁 슬회하는 바탕으로 삼아 노래하였다. 장마다 곡마다 충국위국의 정성이 어리지 않은 게 없다. 관산 통곡의 시, 상삼압수의 가락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으니 실로 宗周의 한이라 하겠고 세상의 보탬이 되는 가르침이라 하겠으니 그래서 혹자는 시정에 저촉되어서 비방에 걸릴까 두렵다고 했다.

...其後 光海政亂 讒佞滿朝 公退伏窮鄉 每語及國家事 未嘗不慷慨流涕矣 嘗作憂國歌二十八章 每於忠憤激厲之際 詠以爲慷慨寓懷之資 章章曲曲 莫非忠君爲國之忱 關山慟哭之詞 傷心鴨水之調 播傳於人口 眞可謂宗周之恨 補世之教 而或者以爲觸忤時政 恐罹於誹訕¹¹⁾

당과 싸움은 일어나기 쉬었지만은 종식되기는 어려웠다. 그것이 종식되지 않은 즉 여러 방면으로 많은 해독을 끼치게 될 것은 거의 贅言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壬辰倭亂이라는 大戰亂을 만나 舉國一致하여 敵에 대항치 않으면 안 될 때에도 당과 싸움은 아직 그치지 않았으니 뜻있는 국민으로서 통

8) 林象德, 「李漆室憂國歌後叙」 1709.

9) 羅以樟, 「題漆室憂國歌後」.

10) 姜銓燮, 前掲書, pp. 66~67.

11) 林慶會, 「漆室公憂國歌序」.

탄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에 이러한 상황을 시조에 읊어 상심한 사람이 漆室이다. 그가 혼자 28首의 시조를 남겼다는 것은 시조문학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도 漆室의 존재는 國文學史上 이미 뚜렷하나 하겠거니와 그는 남다른 憂國의 선비로 임진치욕과 국사를 근심하고 너무나 당과 싸움의 화를 슬직과감하게 譏諷하고 또 嗟嘆하였다.

「憂國歌」 28수는 대체로 憂國自嘆・憂國忠諫・憂國慨世 등 세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 1) 憂國自嘆 : ①장, ②장, ③장, ⑦장, ⑲장, ⑳장 등 6수.
- 2) 憂國忠諫 : ⑧장, ⑨장, ⑩장, ⑪장, ⑮장, ⑳장, ㉑장 등 7수.
- 3) 憂國慨世 : ④장, ⑤장, ⑥장, ⑫장, ⑬장, ⑭장, ⑱장, ⑳장, ㉒장, ㉓장, ㉔장, ㉕장, ㉖장 등 15수.

등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憂國自嘆

우국자탄이란 글자 그대로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고 스스로 탄식한다는 뜻이다. 死力を 다하여 하는 당파 싸움은 국가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리사욕에 얽매여 동·서라는 자자의 당리만 추구하고 있어 당쟁이 그치는 날이 없었다. 그러니 당파 싸움을 말고 또 이를 공정하게 말려야 하는데 朝廷은 당파 싸움을 조정하고 公道를 지키도록 하지 못하니 국가의 해만 조장된다.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을 하는 가운데 임진왜란이 일어나 처참한 희생을 치르는 크나큰 수난을 겪는다. 곧 종묘사직은 폐허가 되고 백성은 도륙을 당하는 사상 비증유의 비극을 맞는다. 선조가 멀리 의주까지 피난가고 밀릴 대로 밀려 국경 관문이 있는 산에서 달을 보고 통곡하고 압록강 바람을 쏘이며 상심해 한다. 이런 처참한 상황인데도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는 당파 싸움은 계속된다. 漆室은 바로 이런 상황을 충분지정으로 자탄을 통하여 표백하였다.

① 學文을 후리티오 反武을 호은 뜻은
三尺劍 물너메오 盡心報國 호러터너

흔일도 하음의 업스니 눈물겨워 호노라.

右第一章¹²⁾

辭曰 投筆而起 此何爲些

提三尺劍 報吾君些

吁嗟乎 事無所遂 不覺淚潛潛些

위의 시조 ①에서 漆室은 임진왜란을 만나 무관으로 三尺劍을 둘러메고 진중, 보국하려 했으나 한 일이 없어 눈물겨워 우국의 자탄을 하고 있다.

② 壬辰年 淸和月の 大駕西巡 호실 날의

郭子儀 李光弼 되오려 盟誓러니

이몸의 不才론들노 알니 업서 호노라

右第二章¹³⁾

辭曰 黑龍之暑 王在野些

慕昔賢忠 矢不移些

噫吁乎 才非可用國 無人我知些

이어 시조 ②에서 선조가 의주로 동진하게 될 때 중국의 고사인 당나라가 난리를 만나 망할 뻔했는데 郭子儀·李光弼이 나서서 구했던 일을 거울삼아 漆室 자신도 충성을 다짐하려 맹서했으나 자기의 재주를 알아 주는 사람이 없으며 우국의 자탄을 하고 있다. 이어 시조 ③에서 왜적에 대한 복수심을 노래한다.

③ 나라히 못니줄거슨 네밭의 뇌여업다.

衣冠文物 이대도록 더러인고

이怨讐 못내 갑플가 칼만 쏴고 잇노라.

右第三章¹⁴⁾

辭曰 彼島夷 作我邦讐些

文物兮 山河變而汚些

茲讐兮 沒齒難忘 磨劍長吁些

12) 右第一章의 歌名은 '盡心報國歌'라 假稱하고 있다. 註6)의 前掲書 p. 67.

13) 右第二章의 歌名은 '大駕西巡歌' 同上書, pp. 67-68.

14) 右第三章의 歌名은 '報復怨讐歌' 同上書, p. 68.

저 섬나라 원수 왜적들의 말발굽 아래 조선건국 2백년의 의관문물이 짓밟혀 더럽혀졌다고 자탄하고 있고, 원수에 대한 복수심에 칼을 갈며 다짐해 본다. 이어 시조 ⑦에서 선조가 왜적에게 밀릴 대로 밀려서 국경 관문에서 남긴 한시를 원용하면서

⑦ 慟哭關山月과 傷心鴨水風을

先王이 쓰실 적의 누고 누고 보은게오
 돌고 바람 불 적이면 눈의 삼삼하여라
 右第七章¹⁵⁾

辭曰 關山月 鴨水風些
 凄兮冷兮 惱我聖衷些
 每遇夫 月明風吹於戲 前王不忘些

국경 관문에서 명나라로 피난여부를 결정하는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판국에, 사직이 폐허가 된 형편인데도 조정에선 당파 싸움이 계속되자 난리 중에 선조는 의주에서 비통하게 당파 싸움을 개탄하면서 앞날을 경계하는 이름난 시를 남겼다.

나라 일이 다급해진 날에
 누가 곶·이처럼 충성을 하리
 서울을 떠나도 큰 재책이 남았으니
 회복은 제공들에게 달렸도다
 관문 산의 달에다 통곡하고
 압록강 바람에 상심하노라
 조선들이여 오늘 이후에도
 다시금 서인이니 동인이니 하려는가¹⁶⁾

15) 右第七章의 歌名은 ‘關山月歌’ 鄭澐의 「漆室李公墓誌銘」에 ‘公見時事日非 卽歸鄉里 名其所居 曰漆室 常徹仰悲 恸作歌二十八章 比寓忠憤 其中關山月 關 實宋先生(筆者註：尤庵宋時烈) 所詠歎者’란 대목에 있음.

16) 宣祖 國事蒼黃日 誰能郭李忠
 去邠存大計 恢復仗諸公
 痛哭關山月 傷心鴨水風
 朝臣今日後 寧復更西東

라고 한 한 편의 시를 표백한다. 그러나 선조가 이렇게 걱정하고 비탄했음에도 난리가 가라앉자 난리 중에 잠깐 잠잠해 보였던 당과 싸움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달이 밝고 바람 불 적이면 漆室은 그 날 그 때 일이 눈에 삼삼하다고 자탄하고 있다. 이어 시조 ⑳・㉑에서

㉑ 어와 거주 일이 金銀玉帛 거주 일이
長安百萬家の 누고누고 딛너놓고
어즈아 壬辰年 뜻글이 되니 거죽일만 여기노라
右第二十七章¹⁷⁾

辭曰 滿堂兮金玉 摠浮漚些
從古而今 夫孰守些
曷觀夫 壬辰兵燹 蕩無有些

㉒ 功名을 願찬커든 富貴인들 비알소냐
一間茅屋의 苦楚히 혼자안자
밤낮의 憂國傷時를 못내 설워 흥노라
右第二十八章¹⁸⁾

辭曰 富貴非願 功名難期些
感時撫事 增餘悲些
嗚呼兮 歌已至此 于以洩平生不平思些

앞의 시조에서 漆室은 世上事로 國家事를 어지럽히는 당과 싸움은 중지하거나 시정하여 개인 아닌 나라를 위해 壬辰年의 병화를 거울삼아 올바른 정치를 바래 본 심정을 노래하였고 뒤의 시조에서 부귀공명을 마다하고 비록 一間茅屋에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살면서도 광해군의 난정으로 나라 형편이 어지러워 짐에 우국의 자탄을 표백하고 있다.

17) 右第二十七章의 歌名은 ‘金銀玉帛歌’ 註6)의 前揭書, p. 68.

18) 右第二十八章의 歌名은 ‘憂國傷時歌’ 同上書, p. 68.

2) 憂國忠諫

우국충간이란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 근심하고 충직하게 옳은 말로 군왕에게 충고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노래한 것은 시조 ⑧에서 보면

- ⑧ 꿈의와 니르샤터 聖太祖 神靈계서
降祥宮 디으시고 脩德을 하라테다
나라히 千年을 누르심은 이 일이라 하더이다.

右第八章¹⁹⁾

辭曰 勉脩德 築降祥些
分明玉音 夢裏琅琅些
國祚兮 靈長在茲 吁嗟聖祖勤懇些

조선왕조 창업이 천세무궁 누리도록 聖太祖 신령이 꿈에 나타나 降祥宮을 창건하여 德治하도록 이르셨는데, 그러한 國基를 보다 굳게 다져야 한다고 憂國의 忠諫을 표백한 것이다. 이어 시조 ⑨에서 보면

- ⑨ 마르쇼셔 마르쇼셔 移都뎡 마르쇼셔
一百적 勤하여도 마르쇼셔 마르쇼셔
享千年 不拔羣基를 더져 어히 흥시릿가

右第九章²⁰⁾

辭曰 莫移都 莫移都些
邇言兮 不可信 莫移都些
享千年 不拔羣基 不可等擲些

임진왜란을 당하자 왜적이 물밀듯 쳐들어오자 선조는 나라의 榮辱을 함께 한 都城을 버리고 끝내 義州로 몽진하게 된다. 종묘사직과 함께 천세무궁토록 누

19) 右第八章의 歌名은 '夢聖教歌' 羅以樺, 「題漆室憂國歌後」

20) 右第九章의 歌名은 '莫移都歌' 林象德, 「李漆室憂國歌後叙」

려야 할 都城을 수호하지 못하고, 여러 신하들이 移都할 뜻을 일백 번 권한다 해도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말도록 憂國의 忠諫을 표백하고 있다.

나라의 운명을 맡은 조정은 당파 싸움만을 일삼아 국론은 분열되고, 관군의 주력이 주저 앉아 임금은 적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 보지도 않은 채 都城을 버리고 밤중에 황급히 봉진 길에 올라 비에 젖고 굶주렸다. 이어 시조 ⑩에서 보면

⑩ 마르쇼셔 마르쇼셔 하 疑心 마르쇼셔
 得民心 外에는 호 올일 업느이다.
 享千年 夢中傳教 노 귀에 錚錚 호어이다.
 右第十章 21)

辭曰 莫疑心 莫疑心些
 民心兮 不可失 莫疑心些
 享千年 夢中傳教 不可忘忽些

앞의 시조 ⑧에서 聖太祖 신령이 꿈에 나타나 降祥宮을 창건하여 德治하도록 이르셨던 꿈 속 傳教가 쟁쟁하다고 거듭 강조하였고 民心은 天心이란 哲理는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일이므로 국란을 당하여 흩어진 民心을 얻는 善政 외는 아무 것도 없다고 憂國의 忠諫을 하고 있다. 이어 시조 ⑪에서 보면

⑪ 비나하 貢賦對答 술 셔허 徭役對答
 옷버슨 赤子들이 배움과 설워호니
 願컨댄 이 뜻 아르샤 宜惠 고로 호쇼셔
 右第十一章 22)

辭曰 女貢絲 男貢米些
 哀我赤子 寒兮饑些
 願吾君 念茲在茲 均宜惠些

21) 右第十章의 歌名은 '得民心歌' 同上書.

22) 右第十一章의 歌名은 '均等宜惠歌' 註6)의 前掲書, p. 68.

끓주린 백성들이 배고파 설어워 하는 데도 당과 싸움은 계속되는가 하면, 백성들은 부역과 배(絲)와 쌀 공출로 혹사당하니, 이것이 어찌 德治이겠느냐고 통탄하고 德治의 뜻을 헤아려 선정을 베풀도록 憂國의 忠諫을 하고 있다. 이어 시조 ⑮에서 보면

⑮ 마리쇼서 마리쇼서 이 싸흠 마리쇼서
至公無私히 마리쇼서 마리쇼서 마리쇼서
眞實로 마리웃 마리시면 蕩蕩平平 하리이다.
右第十六章²³⁾

辭曰 戒止之 戒止之些
至公兮 無私 戒止之些
苟能夫 戒止戒止 蕩蕩平平些

死力を 다하여 하는 당과 싸움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리사욕에 얽매여 동·서·대북·소북 등으로 분당하고 각자의 당리만 추구하고 있어 당과 싸움이 없는 날이 없다. 그러니 당과 싸움을 말도록 진실로 공평하게 사사로움 없이 말린다면 蕩平하게 될 것임을 憂國忠諫하고 있다. 여기서 당과 싸움의 어리석음을 통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안타깝게 당과 싸움을 하지 말 것을 충간하지만 혼미한 광해의 폭정은 그들의 싸움을 더욱 부채질할 뿐 아니겠는가. 역사적으로 英祖가 蕩平策을 썼다고 하지만, 漆室이 이미 그의 '憂國歌'에서 '蕩蕩平平'을 표출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이어 시조 ⑯에서

⑯ 무르쇼서 솔오이다 이 말솨 무르쇼서
仔細히 무르시면 歷歷히 솔옴이다
하늘이 높고 먼들노 솔을 길 업스이다.
右第二十三章²⁴⁾

辭曰 王問于玆 吾有辭些
苟諄諄問 請嘗試些
彼蒼兮 既高且遠 莫能叫些

23) 右第十六章의 歌名은 '至公蕩平歌'로 필자가 假稱하고자 함.

24) 右第二十三章의 歌名은 '王問有辭歌'註6)의 前揭書.

이제까지의 忠諫하는 말씀은 못오시면 보다 사세에 억억히 지워졌는데도 이 사람 힘에 세 지워고서 하는 유복종질도 하량이 높고 멀어서 사될 길 없음을 통탄하고 있다. 이어 시조 ⑭에서

⑭ 我聖祖 積德으로 餘慶千世 亨읍시니
先王도 効劬하샤 順天命 亨시니다
聖主는 이 뜻 알르샤 千萬疑心 말르쇼셔
右第二十四章 25)

辭曰 聖祖懋德 積餘慶些
先王是則 順天命些
聖上兮 其鑑于茲 不愆忘些

장간왕업 2백년에 太祖 이래의 聖朝들이 積德으로 餘慶千世의 기반을 닦았으니, 선왕도 이를 본받아 천명을 좇으셨기에 聖主는 이 뜻을 아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신정만을 배풀어 주시도록 우국의 충간을 표백한 것이다.

3) 憂國慨世

憂國慨世하는 내용을 노래한 시조는 15수가 있는데 이 중 특별히 ‘傷朋黨九章’이라 題하여 9수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傷朋黨九章’에 대한 선인들의 평을 보면 朴象德은 「憂國歌後序」에서 ‘붕당을 싫어하는 9장은 그 지극히 슬픔을 반복하였는데 곧고도 切迫하지 않으니 조정의 사대부가 들으면 瞿然할 것이라’라고 하였고, 林慶會는 「憂國歌序」에서 ‘혹자는 時政에 저촉되어서 비방에 걸릴까 두렵다고 했다. 슬프다. 忠하고도 벌을 받는 것은 옛날의 楚大夫도 면하지 못하였는즉 참조하는 인간이 賢直을 질투하였다 하여 또한 무엇이 걱정될 것인가’라고 평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한마디로 漆室의 ‘傷朋黨九章’이 慨然歎世하는 심정으로 국사를 근심하고 당파 싸움의 화를 솔직 과감하게 譏諷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⑬ 힘써 亨는 싸움 나라 爲흔 싸움인가
옷밥의 못터니셔 홀일업서 싸호듯다

25) 右第二十四章의 歌名은 ‘順天命歌’ 註20)의 前掲書.

아마도 그티디 아니 하니 다시 어히 하니

右第十三章²⁶⁾

辭曰 彼聞者 子爲公乎些

食飽居安 無事爾些

嗟嗟乎 莫之能止 復何爲些

조선조의 당파 싸움은 그 수법이 잔인한 점에 있어서 일시적 작은 승리에 눈이 어두워 나라와 겨레를 망각하고 자기네 자신의 멸망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우매에 있어서 그 유래가 드문 극단의 경우이다.

위 시조 ⑬에선 당파 싸움이란 나라를 위한 싸움은 하지 않고, 일상적인 작은일에 눈이 어두워 '옷과 밥에 묻힌' 싸움만을 계속하여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을 慨世하고 있다. 이어 시조 ⑭에서

⑭ 이는 저 외다하고 저는 이 외다하니

每日의 ㅎ눈일이 이싸흠 ㄹ이로다

이중의 孤立無助는 님이신가 ㅎ노라

右第十四章

辭曰 彼鳥之雌 誰知之些

鶯畫所爭 惟是焉些

哀哀乎 孤立無助 莫我君些

조선조 정치체제 특히 집정기관인 조정이 합의회였으므로 자연히 반대의견, 반대의 黨人, 반대의 黨派가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다.²⁷⁾

사리에만 눈 어둔 당파 싸움을 매일 한다는 것이 상호 비방의 싸움뿐이다. 이 당파 싸움 때문에 고립되고 도움이 없이 지내는 님을 생각하여 개탄하고 있다. 이어 시조 ⑮에서

26) 右第十三章·右第十四章·右第十五章·右第十七章·右第十八章·右第十九章·右第二十章·右第二十一章·右第二十二章의 歌名은 '傷朋黨九章'(林象德과 羅以樟 등의 前揭書).

27) 李命吉, 「李朝政治史의 政治文學의 分析: 時調를 중심으로」 건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3. p. 84.

15 마를디여 마를디여 이 빠흠 마를디여
 尙可更東西를 생각호야 마를디여
 眞實로 말기웃 말면 穆穆濟濟 호리라
 右第十五章

辭曰 已而兮 已而兮些
 彼東兮此西 已而兮些
 苟能乎 已而已而 穆穆濟濟些

배공당리만을 일삼는 당과 싸움을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심정을 표백하고 있다. 곧 당리만을 내세워 집권한다 해도 동과 서는 오히려 다시 자리를 빼앗고 빼앗기고 바꿈을 하는 것이니, 당과 싸움을 그치고, 그것이 진정 그치기만 한다면 이 나라는 穆穆濟濟할 것임을 믿어 당과 싸움만을 하는 時政을 개세하고 있다. 이어 시조 ⑬와 ⑭에서

⑬ 이 이권들 즐거오며 저 디다 설울소나
 이그나 디나 중의 전해 不關호다만은
 아마도 세도디 못호니 그를 설위 호노라
 右第十七章

辭曰 這輸兮邨失 何憂喜些
 而敗而勝 都不係些
 無人兮 莫之能悟 若茲無已些

⑭ 이 외나 저 외나 중의 그만저만 더져두고
 호을 일 호오면 그 가니 호홀손가
 호을 일 호디 아니호니 그를 설위 호노라
 右第十八章

辭曰 彼可兮此否 姑舍是些
 不亦樂乎 當爲爲些
 獨惜乎 怠忽不動 維是之嗜些

당과 싸움의 폐단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시시비비 따위를 그만 두고, 성실하게 자신이 할 일만 하면 될 것인데도, 그렇지 못한 실정을 서

러워 거듭 통탄하고 있다.

당과 싸움에 이긴들 즐거우며, 졌다고 서러워 할 게 없다. 또한 이기거나 지거나 그르거나 옳거나 전혀 상관 없이 자기의 할 일만 소신껏 하면 된다는 삶의 신조는 지극히 당연한 哲理였을 것이다. 이러한 哲理마저 막혀버린 세상사에 대해 경계하면서 통탄하고 있다. 이어 시조 ①9에서

19 이라 다 울호며 제라 다 글올라
 두편이 조특여 이 싸움 아니마니
 聖君이 準則이 되시면 절노 말가 호노라
 右第十九章
 辭曰 彼一是 此一是些
 俱曰予是 曷有已些
 聖上兮 苟建其極 自爾止些

시비가 많고 야욕이 많은 당과 싸움, 원래 싸움이란 두편이 같아서 일어나는 법이다. 이런 당과 싸움의 근절은 바로 聖君이 準則이 될 때 절로 가능하므로 그런 바탕을 마련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을 개세하고 있다. 이어 시조 ②0에서

20 어와 可笑롭다 人間事 可笑롭다
 모업시 궁그려 是非 아니홀다
 아모나 公道을 직리여 모나본들 엇더 호리오
 右第二十章
 辭曰 笑矣乎 笑矣乎些
 是非模稜 笑矣乎些
 夫孰能 練要簡嫻 方不圓些

당론에는 公道를 지키는일이 가장 필수적이다. 당과 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이 개인적인 사실을 들추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정책적 의견충돌이라는 근본적인 면을 소홀히 취급하였음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²⁸⁾ 당리당략만을 일삼

있을 때 당과 싸움은 치열해지고, 시비는 또 시비를 낳고, 거듭되는 시비와 싸움 속에 나라 일은 엉망이 되고 백성의 얼굴은 일그러지게 마련인 것이다. 아무나 公道를 지키고 모나 본들 어찌하라는 그 의도 속에 公道가 땅에 떨어진 것을 개세하고 있다. 이어 시조 ㉑에서

㉑ 이제야 생각과라 모르고 하노도다
 國家의 害로운 줄 혈마 알면 그러하랴
 반드시 모르고 하면 일러볼가 하노라
 右第二十一章

辭曰 我知之 我知之些
 人之爲言 我知之些
 苟知夫 害于而國 可與言些

당과 싸움은 그 폐단을 모르고 싸우는 것일까. 나라의 해가 되는 것을 설마 알아서야 어찌 당과 싸움을 하겠는가. 진정 몰라서 당과 싸움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背公黨利한 것인가를, 그리고 이것이 국론을 분렬시켜 나라의 큰 폐단이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싶다고 개탄하였다. 이어 시조 ㉒에서 보면

㉒ 알고 그리논가 모르고 그리논가
 아니 알오도 모르노라 그리논가
 眞實로 알고 그리면 닐리 무슨 하리오
 右第二十二章

辭曰 彼人是哉 子曰何些
 乃如之人 終莫悟些
 苟使焉 知而然矣 夫何言些

당과 싸움은 폐단이 많다. 그런 폐단을 알고서, 아니면 전혀 모르고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 진작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당과 싸움을 하는 것인가

의문이다. 진실로 알면서도 당과 싸움에 관여한다면 새삼스레 일러 무엇하겠느냐고 개탄하고 있다.

시조 ㉑에서 당과 싸움을 모르고 했다면 그 폐단을 얘기하겠다는 의도가, 시조 ㉒에서 당과 싸움의 폐단을 알고서도 했다면 얘기해 소용이 없음을 통탄해 하고 있다. 곧 이는 당과 싸움의 폐단을 지적한다는 자체가 또 하나의 편견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위 '傷朋黨九章'은 선조 때부터 일어난 동서분당이 빚은 당파 싸움의 폐단을 譏議하고 또 嗟嘆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파 싸움은 광해군 때 와서 극에 달하였는데, 광해군의 荒淫無道한 조정에는 날로 忠良한 臣下가 추방당하고 점차 간신 소인배만 들끓게 되었다. 이렇게 세상사가 날로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漆室은 나라를 근심하고 비분에 겨워 '傷朋黨九章'을 창작한 것이다.

이 '傷朋黨九章'의 각 작품마다에 나타난 詩的 語彙를 가려 뽑아 보면 '싸움'이란 단어가 6개나 된다. 이는 당파 싸움의 '싸움'이 얼마나 극심하면, 이런 단어를 시어로 선택하였는가를 헤아리게 한다. 명분 없는 싸움, 분파, 대립, 갈등 등으로 국론마저 분열되는 당파 싸움의 폐단을 통탄하면서 개세하고 있다. 그 밖에 시조 ④와 ⑤에서 보면

④ 城 잇사되 막으랴 네와도 홀일업다.

三百二十州의 엇디엇디 덕킬게오

아모리 蠹臣精卒인들 의거업시 어이 허리

右第四章²⁹⁾

辭曰 城不高 何以禦敵些

大都兮名州 蹂而躍些

縱有夫 蠹臣精卒 無奈于國些

⑤ 盜賊 오다 다투 막으리 아니와서 알니로다.

三百二十州의 누고 누고 힘써 홀고

아모리 애고애고 홀들 이人心을 어히허리.

右第五章³⁰⁾

29) 右第四章의 歌名은 '無城歎歌' 註15)의 前掲書.

30) 右第五章의 歌名은 '慨歎人心歌' 註6)의 前掲書.

辭曰 禦敵由人 無人誰禦些
 哀我列郡 無男兒些
 已矣乎 人心若茲 又何爲些

왜적의 침략으로 국난을 겪게 되자 나라의 榮辱을 함께 한 온나라 안의 320 주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가 걱정이다. 어느 누구가 힘써 분발해서 나라를 구할 것인가가 근심이 된다. 人心 또한 분분하니 어찌할 것인가. 이러한 일들을 개세하고 있다. 이어 시조 ⑥에서

⑥ 어와 설운디오 생각거든 설운디오
 國家 艱危를 알니업서 설운디오
 아모나 이 艱危 알아 九重天의 슬오쇼서
 右第六章 31)

辭曰 心之悲矣 思之愈悲些
 國家艱危 知無人些
 夫孰能 知此艱危 奏吾君些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다. 임진란 전야에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들은 왜적의 침략 의도에 관해서도 왈가왈부 대립하기에 이른다. 국난을 겪게 될 위기에 국론을 통일하기는 커녕 분열되고 만다. 이토록 국가의 艱危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슬프고 신하된 자 아무나 이 艱危를 인식하여 군왕에게 솔직하게 사뢰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일을 절통하게 개세하는 심정을 표백하였다. 이어 시조 ⑫에서

⑫ 功名과 富貴란 餘事로 하여두고
 廓廟上 大臣네 盡心國事 하시거나
 이렁성 저렁성 후다가 내종 어이 후실고
 第十二章 32)

辭曰 貴莫要 名莫營些
 惟我縉紳 勅于邦些
 吁嗟兮 悠悠泛泛 終奈何些

31) 右第六章의 歌名은 '國家艱危歌'로 필자가 假稱하고자 함.

32) 右第十二章의 歌名은 '盡心國事歌' 註6)의 前掲書.

국란을 겪는 와중에서 부귀공명을 여사로 하여 두고, 조정의 대신들이 나라 일에 온 마음을 다 쓴다 해도 모자랄 텐데 이력 저력 허송하다가 나중에 어찌 할 것인가고 하여 개탄하면서 盡心國事하도록 경계하고 있다. 이어 시조 ㉔에서 보면

㉔ 싸움에 시비만 하고 公道是非 아니는다
어이흔 時事 이갓티 되었느고
水火도곤 김고 더운환이 날로 기러가노마라
右第二十五章

辭曰 是兮非兮 競周容些
嗟嗟時事 胡至此些
以至夫 如火火甚 吁可怕些

公道를 위한 시비는 아니하고 당과 싸움만을 일삼으니, 어찌해서 시국의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우려가 된다. 끝내 당과 싸움으로 말미암은 폐단이 마치 물불보다 깊고 더우며, 근심이 날로 길어갈 뿐, 이렇게 時事가 어지러워진 것을 개세하고 있다. 이어 시조 ㉕에서 보면

㉕ 나라히 굿드면 딛이 조차 구드리라
딛만 도라보고 나라일 아니 하너
하다가 明堂이 기울면 어너 딛이 굿돌이오
右第二十六章

辭曰 邦之固矣 家以安些
不顧于國 彼何爲些
倘使夫 大廈既傾 終無奈些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 절로 집도 따라 굳혀질 것인데도 집만 돌아보고 나라 일은 전혀 아니한다. 그리하다가 明堂인 나라가 기울면 어느 집이 굳겠는가. 당과 싸움을 비유하여 大我를 위하여 小我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개세하고 있다.

Ⅲ. 結 語

이상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漆室 李德一은 명종 16년(1561)에 출생하여 임진왜란을 몸소 겪은 무신이다. 광해난정으로 고향에 은퇴하여 충분지정으로 세상을 한탄하면서 ‘憂國歌’ 28수를 지어 부르다가 광해군 14년(1622)에 타계하였다.

둘째, 연시조 ‘憂國歌’ 28수는 시적 내용으로 보아 ① 憂國自歎 ② 憂國忠諫 ③ 憂國慨世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거니와 ‘憂國歌’를 통해 漆室은 남달리 임진치욕과 국사를 근심하고 더우기 당파 싸움의 화를 솔직 과감하게 譏諷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당파의 정치문학적 비평의 결론이 될 수 있다.

셋째, ‘憂國歌’ 28수 중 특히 ‘傷朋黨九章’은 당쟁이 빚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憂國慨世의 솔직한 譏諷嗟歎을 내용으로 한 당쟁시가의 대표작으로 길이 기념할 작품이라고 믿는다.

넷째, ‘憂國歌’의 국문학사상 가치는 漆室 개인이 武臣으로서 시조사상 憂國만을 주제로 해서 28수의 연시조를 남기므로 제일인자로 그의 존재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시조 작품의 내용이 한결같이 국가의 安危에 비분강개하고 憂國忠憤에 일관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다섯째, 조선조의 정치체제 특히 執政機關인 조정이 臺議制였으므로, 자연히 반대의견, 반대의 黨人, 반대의 당파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당쟁의 대부분의 원인이 개인적인 사실을 들추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정책적 의견 충돌이란 근본적인 면을 소홀히 취급하였음도 看過해서는 안된다. ‘憂國歌’에는 조선조의 당파 싸움의 핫점과 시비의 모순과 부패한 士類 政治人들의 脆弱하고 병폐에 가득찬 당파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본다.